



NEWS - 2014가을독서문화축제, 성황리에 마무리하다

지난 8월 사전행사부터 9월 20일~21일 본 행사, 그리고 다음 날인 22일 서점 행사를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최, (사)한국독서문화재단 주관, (주)큐라이트, 벅스북이 협찬하는 2014가을독서문화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전행사부터 본 행사까지 부산 시민들과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가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8월 11일부터 9월 21일 행사 당일까지 '향토 서점 살리기'라는 부제에 걸맞게 부산 지역 각 서점에서 사전행사를 진행하였다.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행사로, 인문학 · 어린이문학 · 세계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각 서점의 특색을 잘 살려 서점이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독서축제와 차이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9월 19일~20일 양일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신길자 강사와 김도윤 · 제갈현열 강사를 모시고 20대를 위한 청춘 강연을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이 강연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독서 진흥과 책방 살리기를 위한 좌담회도 개최하였다. 9월 20일 오후 3시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에서 '책읽기와 친해지기 위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9월 21일 오후 3시 보수동 책방골목 내 우리글방에서 '책방은 도시의 숨이다'를 진행하였다. 각계각층의 독서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축제의 목적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20일(토)에 열린 개막행사와 북콘서트에서는 MBC 박기홍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악청, 아트레볼루션, 매직 큐 등 다양한 공연팀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고, 함정임 교수와 김영하 작가와의 북 토크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최근 발간한 신간 『보다』와 지난 해 발간한 『살인자의 기억법』을 중심으로 북토크를 진행하였으며, 부산에서 생활하는 김영하 작가의 일상과 취미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많은 부산 시민들이 김영하 작가에게 질문을 하여 김영하 작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21일(일) 오후 2시에는 KNN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독서문화음악제가 열렸다. 김은숙(중구청장), 김상윤(한국독서문화재단 회장, 고신대 부총장), 한수성(작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본선에 진출한 총 12개팀(중창 2팀, 독창 10팀)이 경연을 펼쳤다. 광복로 거리에서 어린 아이들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져 오고 가는 수많은 부산시민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였다. 부산시장상이 주어지는 이날의 대상은 독창 강준형(주원초등학교 6학년), 중창 무지개팀에게 돌아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풍성한 볼거리가 더 많았다는 평이 많았다. 책으로 엮인 다양한 공연과 강연으로 가을밤을 책 향기로 물들였다. 현재 2014가을독서문화축제 공식블로그(<http://2014books.blog.me/>)와 이메일(2014books@naver.com)을 통해 참여 후기를 받고 있으며, 공식블로그에서는 열기 가득했던 현장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북콘서트(김영하작가)



독서문화음악제



지역작가 강연(표성흠소설가)



청춘 강연(김도윤, 제갈현열)



놀다랑 다도체험



부스 참여 현장

11월 개강과정 정기 수강신청 접수안내

· 정기수강신청기간 : 2014년 10월 01일 ~ 10월 31일

· 추가수강신청기간 : 2014년 11월 1일 ~ 11월 10일

	과정명	기수	강의수강시간	복습시간	수강료	주관	수료조건	
자 격 과 정	독서지도사 통합	44	2014.11.01 ~ 2015.02.28	1년	282,000원 (침삭료 포함)	(사)한국독서 문화재단	수강기간 내 강의 80%이상 + 과제 100% 제출시 수료 가능	
	독서지도사 2급	47	2014.11.01 ~ 2014.12.31	1년	163,000원 (침삭료 포함)			
	독서지도사 1급	47	2014.11.01 ~ 2014.12.31	1년	173,000원 (침삭료 포함)			
	논술지도사	109	2014.11.01 ~ 2014.12.31	1년	178,400원 (침삭료 포함)			
	중등통합논술지도사	84	2014.11.01 ~ 2015.01.31	1년	217,400원 (침삭료 포함)	박스북 평생교육원		
	NIE지도사	78	2014.11.01 ~ 2014.12.31	1년	208,000원 (침삭료 포함)	한국NIE협회		
	동화구연지도사	29	2014.11.01 ~ 2014.12.31	1년	208,000원 (침삭료 포함)	한국언어 능력평가원		
수 료 과 정	유아독서지도	102	2014.11.01 ~ 2014.12.31	2개월	96,200원	(사)한국독서 문화재단	수강기간 내 강의 100% 수강 시 수료 가능 (* 독서치료과정 강의수강 80% + 과제제출 100%)	
	글쓰기지도	105	2014.11.01 ~ 2014.12.31	2개월	109,200원			
	독서치료	96	2014.11.01 ~ 2015.01.31	3개월	164,700원			
	역사논술지도	84	2014.11.01 ~ 2015.01.31	3개월	183,600원	박스북 평생교육원		
	한자교육급수지도	76	2014.11.01 ~ 2014.12.31	2개월	132,600원			
	한자공인급수지도	75	2014.11.01 ~ 2015.02.28	4개월	218,400원			
보 수 교 육	독서지도사보수교육	51	2014.11.01 ~ 2014.11.30	1개월	30,000원	(사)한국독서 문화재단	수강기간 내 강의 100% 수강 시 수료 가능 (*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증 갱신)	
	논술지도사 보수교육	51	2014.11.01 ~ 2014.11.30	1개월	30,000원	박스북 평생교육원		
	중등통합논술지도사 보수교육	36	2014.11.01 ~ 2014.11.30	1개월	30,000원			
	NIE지도사 보수교육	13	2014.11.01 ~ 2014.11.30	1개월	30,000원	한국NIE협회		

참고하세요!

박스북 과정
진행 절차

1. 지원서 작성
 - 강의 수강 전 반드시 지원서 작성 (교재발송, 수료증 및 자격증 발급 근거 자료)
2. 수강진행
 - 동영상 강의 : 수강기간 내 5번까지 반복 수강 가능 / 80%이상 수강(Play)시 출석인정-> '수강완료'로 처리
 - 강의교재(강의안) : 강의실 내 '강의보기>교재받기'에서 PDF파일로 제공
 - 과제제출 : 강의실 내 "과제방"에서 내용 확인 후 첨부 원고지 사용하여 과제 작성 후 제출
3. 과정수료
 - 정기수료 : 수강기간에 맞춰 수료조건 충족 시 (수강진행 80% 이상, 과제 100% 제출 + 월 1회 수료평가 Pass)
 - 조기수료 : 수료를 원하는 달에 맞춰 충족 시 (수강진행, 과제제출 100% + 월 1회 수료평가 Pass)
 - * 박스북 고객센터(1544-6164, 단축번호 2번)로 연락 / 수료과정은 수료평가 없음
4. 수료증 발급
 - 수료일 익월 6일 이후 강의실 내 "수료증발급"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5. 자격검정 응시
 - 수료 후 1년 안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에 응시가능 / (사)한국독서문화재단에서 자격증 발급

이달의 소식 ★
NOTICE

1. 제22회 수료후기 공모

자격과정(보수교육 제외)또는 수료과정을 수료한 회원님들의 수료후기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2. 개인정보 수정 시, 북머니 3,000원 지급

로그인 후, 회원정보 수정을 변경한 회원에게 1회 자동지급 합니다.
* 북머니 확인방법: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폴더>북머니 내역

'북머니'

- ✓ 개별강의 청취,
- ✓ 독서지도 자료 구매



* 자세한 사항은 박스북 홈페이지(www.bugsbook.com)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 우수작 / 독서지도사통합 37기 차미선

몇 년 전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독서지도사’란 직업에 대한 안내를 접하게 되었다. 책을 좋아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생활로 힘들었던 나는 눈을 반짝이며 ‘이런 직업이 있었어?’ 하고 안내문을 들여다보았다. 왜 이걸 이제야 알았는지 아쉬움이 컸다.

‘진작 알았더라면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하고 말이다. 그러나 웬걸, 마음은 그랬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마냥 시간이 흐르고 결혼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둔 나는 비로소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독서지도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도 어찌나 많은지,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온라인 최강자라는 ‘빅스북’을 알게 되어 ‘열심히 해보겠노라!’ 다짐을 안고 독서지도사통합 과정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두 강씩 들으며 차근차근 정리 해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물며 며칠 동안 미뤘다가 한 번에 여러 강을 듣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온라인 강의의 장점!

내 시간에 맞춰 유동적으로 공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강의를 놓치지 않게 해준 것 같았다. 평균 진도에 뒤처질 때마다 울리는 빅스북에서 보낸 문자 소리를 친구 삼아 다행히 과제와 수료평가 모두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었다. 진도가 100%를 향해 갈수록 뿌듯한 맘도 커졌지만 온라인 강의라 ‘혹시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불안감도 있었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오프라인 강의! 너무 초보인지만 염려스러웠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내가 원했던 것을 모두 충족시켜 주었다.

실무에 대한 강의는 물론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잡히는 듯 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이론과 틀을 잡아나가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재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강의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과제는 다달이 독후감을 한 편씩 쓰는 것과 요약하기, 수업 계획안 짜기도 있었다. 독후감 쓰기와 요약하기는 학교 다닐 때도 했던 거라 부담이 덜했지만 수업 계획안 짜기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

며칠 동안 도서관에 앉아 관련도서를 뒤지고, 인터넷에서 자료 찾느라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 파스까지 붙일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과제란 걸 열심히 해본 지가 얼마 만인지.. 힘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했다. 보완할 점이 많겠지만 이모저모 다 고려하며 나름대로 균형 잡힌 지도안을 작성하려고 애썼고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람 있었다.

‘이렇게 나도 독서지도사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다.

이제는 시험만 남았다. 바로 시험에 도전해서 빨리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손에 쥐고 싶기도 했지만 조금 미뤘다. 강의를 듣는 녀 달 동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못했기에 이왕 하는 공부는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수료 후 1년 동안 동영상 강의를 복습할 수도 있으니 이점을 활용하면 될 듯하다. 그리고 보니 시험만 남은 것이 아니다.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테니 어쩌면 독서지도사의 길은 그 끝이 없는 것만 같다. 폭넓은 시선을 지닌 좋은 독서지도사로 설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도 차근차근 내 하루를 채워나간다.

내가 걷고 있을 그 길의 첫걸음에 빅스북이 함께였음이 든든하다.



<김상운 교수님 글> - 잘 우는 아이

저는 어릴 때 잘 울었습니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3학년 통신표에는 담임선생님께서 “사소한 일에 잘 우는 아이이므로 지도를 요함”이라고 적어 보내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그 통신표를 보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들은 잠재력이 많다는 이시형 박사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머리가 좋은 것이 분명하니까요.

아이가 살아가는 바깥세계도 복잡하지만 내면세계는 더욱 복잡하지요. 아기의 내면세계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보다 부모나 친구들과 지낼 때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나라를 좋아하는데 왜 나라는 나를 자꾸만 피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지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파란 하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은 직관이지만 파란 하늘을 보고 예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추리입니다. 지능은 추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은 화를 그냥 터뜨리는 것 보다 더 내면적으로 성숙된 것이지요. 여러 가지 생각해도 해결이 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오게 되지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처럼 조용히 우는 아이는 생각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는 것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아파서 잠시 우는 것이나 생떼를 부리면서 억지로 우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서러워 흐느끼는 것은 훨씬 성숙된 것이지요. 아이들이 놀다가 울고 들어왔을 때, 다시 가서 어떻게든 이기고 들어오라고 밖으로 돌려보내기 보다는 아이의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어주고 잠시나마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오랫동안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먼 훗날 어른이 되어도 파스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다 마음에 큰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김상운
고신대학교 교수
(사)한국독서문화재단 회장



<김경만 작가 수필> - 책 노을에 물든다

그 따뜻함을, 여유를, 겸손을 배우며 그저 바다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향하였다. 여유를 가지고 찾아가는 길에 내 눈이 만난 모든 것이 전해주는 흐릿함은 행복을 주기에 충분하다.

모든 인간이 자연을 꿈꾸는 순간 인간은 자연이 될 수 있음을 느낀다. 수평선 저 멀리부터 노랑과 빨강으로 색칠하더니 시나브로 노을이 물든다. 향기마저도 고소하다. 그리하여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해 가는 길은 조금씩 들뜨기 시작한다. 멈추어 섰다. 어떤 이끌림으로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소병대도 등 크고 작은 섬들로 둘러싸인 한려수도 푸른 바다가 황홀경에 빠지기 시작하기에…….

푸름에 둘러싸인 다대도 풍경이나 일몰 풍경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아! 위대한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이며, 보이지 않는 힘이며, 진정 극한 아름다움이다. 저녁노을이 아스라이 내려앉은 홍포 비경에 일행은 흥분하였다. 노을을 등에 지고 조금은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곳 남부면 자치센터 소담스런 도서관에서 반겨주는 이들 모두 그리하여 자연을 닮아 있다.

소속하고 있는 한국독서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기증지를 생각하던 중 고향이 떠올랐다. 시청에 재직하는 지인에게 지역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가능하면 도서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곳에 지속해서 관계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에 섣불리 전 근무지였으며 거처 최남단인 남부면의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을 추천하여 주었다. 자치단체장과 통화하니 흔쾌히 인연을 맺고 싶다고 하였다. 담당자들이 여러 날 논의를 하고 드디어 사랑을 담고 지금 만나러 가는 중이다.

이번에 기획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름을 달고 독서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을 넘어선 작은 도서관 간 교류를 추진함과 아울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간 만남과 교류를 통해 수평적 나눔을 실천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성인에게는 자녀 독서지도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 운영 방법을 나누는 목적을 가진다. 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 유지들과 간단한 기증식을 했다. 100권이 조금 넘는 그다지 많은 도서는 아니지만, 자원봉사자의 기부 물품을 경매를 통해 마련한 것이기에 의미는 자못 크다. 잠시 후 학부모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 및 도서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녀 독서지도 방법에 대한 토론 등으로 시간을 나누었다.

독서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독서가 독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깊이와 효과는 더 커진다.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단인 책은 꿈과 비전을 찾는 가장 좋은 친구이다.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삶을 깊이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독서는 삶 일부이길 요구하고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책 읽는 공간이나 기회가 도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골지역에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은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다.

독서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구되어야겠고 사회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 독서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여 도시와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겠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독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책 통해 지혜를 축적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을 위해 우리 단체도 지속해서 독서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단체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둔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칙칙 같은 어둠이, 황홀했던 홍포의 노을을 삼킨 후였다. 아쉬움에 바다 쪽으로 시선을 보내 보지만 태평양을 담은 고요한 바다만이 나를 밀어낸다. 어머니께 전화를 넣었다. 가까이에서 왔으면서도 일정 탓에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목소리로 안부만 묻고 돌아서야 하니 아쉬움이 인다.

하지만 고향 시골 마을에 사랑이 담긴 책을 전하고 보니 마음이 따뜻하다. 많은 이의 사랑이 담긴 책을 읽으며 미소 지을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 어느새 눈가에 웃음이 지어졌다. 일행의 얼굴에 걸려 있는 미소가 나와 다르지 않으리라. 거가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이 멀어져간다. 책으로 맺은 인연을 홍포의 붉은 노을과 함께 가슴에 담는다.



★

도서소개

👑 신간도서 - 도서관 할아버지

- 글: 최지혜
- 그림: 엄정원
- 출판사: 고래가숨쉬는도서관/40쪽/2014.10.02.출간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아름다운 창작 동화들을 만날 수 있는 ‘꿈꾸는 고래’ 시리즈의 두 번째 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싶었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인표 도서관 할아버지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도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책을 만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할아버지가 만든 도서관은 꿈을 가꿔 가는 보물 창고였고,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즐겁고 따뜻한 놀이터였습니다. 출처: 교보문고

* 벅스북에서는 매월 추천도서를 선정해 회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벅스북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